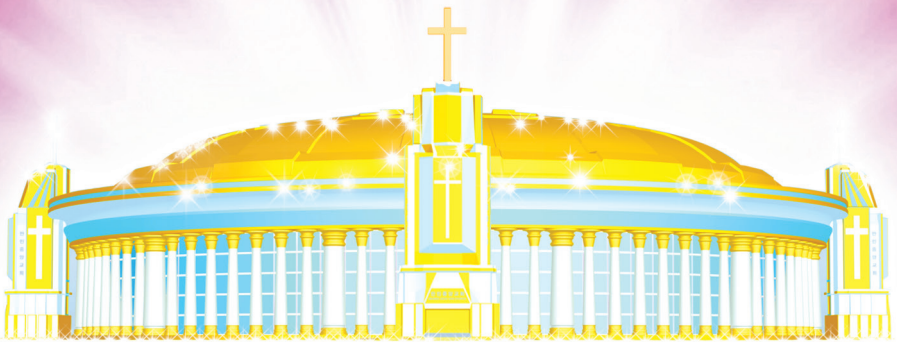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요한 주현권 안성현 조대희 조희희 조수열 주현철 양도덕 정규원 김영석3 오원석 장성식 장현진 이풍근 이정완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달 김성덕 노영진 문신현 유동훈 김기석 권상내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중훈,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끄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천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상일 영 국: 제인 음플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초찬형, 성 수,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굴: 발저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자이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여 부목사/	이미경 이수진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원로 장로/	이정호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문경진 유익선 박진우 최정수 이종섭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김영식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광근 김진홍 송석길 이수형 이강준 장영규 이익성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영일 김준호 빈성남 조금석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대봉 채윤석 이수현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오광선 정태환 고광구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근 이강현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교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용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상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구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용 배철호 김영남 서성기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장 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태
전 도 사/	성하은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태
여 전도사/	주지영 김영순 권영남 김정희 박갑숙 기명숙 차경숙 정동일 최금옥 최영신 조영숙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이미옥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김효정 최미숙 윤영자 한금주 임금선 이봉남 김도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주순영 황금란 박애형 김정희66 천영숙 김영숙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권영자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명예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태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용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닷시오케스트라: 김한구
기도원 교역자/	주현철 양도덕 김영석3 이정완 최금옥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지교회 교역자/	김요한 이행원 강승표 길태식 황병덕 문대규 박형렬 정철수 최계수 박재영 서진범 박종대 오환준 김해경 김창숙 차전환 강영식 이상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40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53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59장	다 같 이
기 도	최영자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0:3~6	사 회 자
찬 양	사랑의 주가 오셨도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2차 영혼육(9)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33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문신현 목사

대표기도	이영인 전도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1:6~9/ 사회자
찬양	기뻐하라/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김한구 장로
설교	마음을 하나로/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규원 목사

대표기도	차난영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41:1~36/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물렸던 보석이 드러나던 날/ 고경아 전도사

송구 영신 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임학영 목사

1부 예배

대표기도	이복님 원장
성경봉독	마가복음 9:23/ 사회자
찬양	연합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승원 집사
설교	불가능이 없는 믿음(신년 기도제목①)/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2부 축복 기도 및 공연

2-8회 14차 다니엘 철야(온라인)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12월 13일(월) ~ 2022년 1월 2일(주일)
주제/ 2022년 사명을 위해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장성식 목사	이영인 전도사
수요 예배	조혁희 목사	권영남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조대희 목사	김진홍 장로



제 목 : 2차 영혼육 (8)
 본 문 : 고린도후서 10:3~6

지난 시간에 이어 혼의 작용을 진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이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총칭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 또 기억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은 모두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혼의 작용을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거나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감정을 품는 등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의 혼의 작용을 해야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둘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가르침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진리, 곧 66권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든지 진리의 느낌을 가지려면 처음 입력시킬 때부터 진리에 합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으면서 “목사님한테 혼난다” 하고 자신이 섬기는 목자를 무서운 분으로 입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라면서 목사님을 보면 무서워하여 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느낌을 어떻게 심어 주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보고 비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 들랜다, 잘난

체한다’ 하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진리의 느낌이 한번 입력되고 나면 이후로도 그 사람을 볼 때는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쉬운 것이지요.

반면에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하나님 의 일에 참 열심이 있구나,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한번 심어져 버리면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처음부터 진리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비진리의 느낌을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은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어둠 가운데 혼자 있으면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놀라기도 하지요, 이럴 때 ‘안 무섭다’고 스스로 부인해 보기도 하고, 무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두려움을 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으면 느낌이 바뀝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하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므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오히려 영적인 빛으로 인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히 알면 두려운 느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느낌으로 바뀌지요.

오래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유럽 박물관의 조각상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민망해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느낌이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입력된 느낌을 바꿔 버리면 전혀 민망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요. 범사에 진리로 생각하면서 진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비진리의 느낌을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갈 때 혼의 작용 또한 진리로만 하게 됩니다.

셋째, 범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입장과 경험, 사고방식 가운데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말을 가감하기도 하고 판단 정죄하거나 오해하여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산에 대한 자료들이 즉각 떠오릅니다. 예전에 산에 가 본 경험이나, 금강산에 직접 가 보지는 않았다 해도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금강

산에 대한 자료 등이 떠오르는데, 대부분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산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라니,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라며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 보지 못했거나 인내심이 더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엄살이 참 심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과 경험에 맞춰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면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산에 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웠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믿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 줍니다.

만일 늦게 퇴근한 남편이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통명스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혹은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해하고 품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힘을 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해도 늦게까지 기다린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내를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화평이 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일까?’ 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거나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허물을 보아도 용서할 수 있고 공허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어 버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을 수 있으니 미워할 것도 없고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지요. 설령 상대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는다 해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공허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7년간 병 중에 있을 때, 돈을 벌지 못하고 가족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처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한이 맺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은 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자, 그들에 대한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나 여동생을 데려다가 심한 고생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가 그러했지요.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했는데 이 말에 찔림이 된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올렸지요(행 7:60).

물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묵인하여 덮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스테반이 그런 것처럼 상대의 악함을 깨우쳐 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에 대해 책망한다 해도 상대가 회개하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참된 사랑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훈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 하려고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동시에 불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행실을 늘 점검하면서 혼의 작용을 진리로 바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면 생각이나 느낌을 쉽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면 즉시 차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냄새나 소리, 통증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단할 수 있지요.

모든 생각과 느낌을 지배하여 진리로만 혼의 작용을 하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롬 8:6). 우리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결국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들만 할 수 있고 생각과 느낌을 마음먹은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로 분별하며, 진리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을 다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을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과 팔복(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읽을 말씀 / 마태복음 5:10~12

외울 말씀 / 마태복음 5:10

참고 말씀 / 마가복음 10:30

교육 내용 /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한다.

이 세상에 핍박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에 대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와 선과 빛을 좇아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애매히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왜 주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이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빛에 속합니다(요일 1:5).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은 어두움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엡 6:12).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은 빛의 자녀들을 싫어하지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어두움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빛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주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받는 경우

1)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 모양으로 핍박이 오기도 합

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술도 마시고 비진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술도 끊고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니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되지요.

주일에 직장에서 친목회가 있으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회사생활 하면 승진하기 어렵다.”며 압박을 가하지요.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또 남들은 적당히 속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니,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위사람이 있을 때는 섬기고 비위를 맞추다가도, 자리를 비우면 험담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잘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진실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하지 않지요.

처음에는 이런 경우들이 핍박거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봅니다. 선과 사랑으로 승리해 가기 때문에 핍박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핍박을 이겨 나감으로 믿음이 더 장성해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니 영육 간에 축복인 것입니다.

2) 자신의 잘못이나 지해가 부족해서 핍박받는 경우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는 경우 외에 지해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핍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지 못해서, 주변에 덕이 되지 못해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도 발생하지요.

가령, 여 성도님이 게을러서 집 안 청소나 식사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교회 일로 바쁘다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집 안을 돌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정작 핍박받은 당사자는 하나님 일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교회 간다면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실수를 잘하며 불성실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전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교회 갈 시간에 자기 일이나 잘하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면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승리하시되, 혹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면, 신속히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이나 불법으로 인해 받는 핍박은 복이나 상급이 될 수 없지만,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기엔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크게 받아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유하는 천국’과, 여

덥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을, 후자는 각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은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리로 인내함으로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차 청년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장성해 가기 때문이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속 깊이 있는 비진리까지도 발견하여 버리니,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의를 행하여 마음을 변화시켰느냐에 따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4. 주를 위해 받은 핍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모든 핍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 된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흠도 티도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들의 형벌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생명까지 드렸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딤후 4:7~8).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의 충성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은 물론, 밝히 교통해 주시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시지요.

그러므로 혹여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 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 은 어떻게 다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고린도전서 15:41)**

- 해의 영광 : 아버지들의 믿음으로 3천층 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의 영광
- 달의 영광 : 청년들의 믿음으로 2천층에 들어간 사람의 영광
-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 아이들의 믿음으로 1천층에 들어간 사람의 영광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은 각각 큰 차이가 난다.

또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의 크기나 밝기가 다르듯이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상급이 없고 영광이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70-8240-2075)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⑤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예배시간/
장 소/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가 이탈리아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우간다 루간다어로, 「천국(상)」이 포르투갈어로, 「십자가의 도」가 알바니아어로, 「일곱 교회」가 루마니아어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라트비아어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가 리투아니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2022년 정기 사무연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사무연회 요약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게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원로회가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금)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 ※ 설교: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 준비 찬양은 예배 20분 전인 오후 10시 40분부터 있습니다.
- 작정 다니엘 철야가 2022년 1월 3일(월)부터 2022년 1월 23일(주일)까지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제: 2022년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 ※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 우림북/ 1월 추천도서는 「영혼육(상)」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1세대 4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권영자 전도사 010-7773-035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2/26 일

- 00:00 - '십자가의 도 16'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 17:00 - '공부 잘하는 비결 2' 이재록 목사
- 18:30 - '주님의 마음' 이미경 목사

12/27 일

- 01:00 - '요한일서 강해 40' 이수진 목사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3'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23'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5'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3'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103' 이재록 목사

12/28 화

- 01:00 - '사람이다스러야 할 몸의 행실 10' 이수진 목사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4'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23'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6'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17'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14' 이재록 목사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공과 32

12/29 수

- 00:00 - '십자가의 도 19' 이재록 목사
- 01:00 - '2차 영혼육 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강해 1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6:00 - '축복 5'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5'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16' 이재록 목사
- 17:00 - '공부 잘하는 비결 5'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19' 이재록 목사

12/30 목

- 01:00 -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수진 목사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6'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25'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8' 이재록 목사
- 13: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13
- 15:30 - '지옥 16'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06' 이재록 목사

12/31 금

- 08:00 - '믿음의 분량 26' 이재록 목사
- 12:05 - '축복 6'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20'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14
- 17:00 - '공부 잘하는 비결 7' 이재록 목사
- 21:00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1

1/1 토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8' 이재록 목사
- 10:00 - '영적 예배' 이재록 목사
- 12:05 - '축복 7' 이재록 목사
- 16:00 - 영적인 존재들 18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한국어)41번(영어)42번(불어)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Dec. 26(Sun.)

(Acts 4: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 Dec. 27(Mon.)

(Acts 16:31)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 Dec. 28(Tue.)

(Acts 20:24) “But I do not consider my life of any account as dear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which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solemnly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 Dec. 29(Wed.)

(Romans 1: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Dec. 30(Thu.)

(Romans 1:20)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through what has been made,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 Dec. 31(Fri.)

(Romans 2:13) “For it is not the hearers of the Law who are just before God, but the doers of the Law will be justified.”

- Jan. 1(Sat.)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금주의 성경구절

12월 26일(주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2월 27일(월)
(행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12월 28일(화)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2월 29일(수)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2월 30일(목)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2월 31일(금)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월 1일(토)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요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식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니라/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라/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될까?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뭇가에 보내니라/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URIM BOOKS

Merry Christmas



12월 추천도서



어떠한 시련도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어떠한 비바람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최상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흔들릴 것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었으며,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볼골의 의지였다.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성
길뿔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자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성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